

무보, K-콘텐츠 금융지원 확대 문화보증·할인으로 수출 가속

작년 146개사에 1858억 규모 보증
문화산업보증 도입, 17개사 지원
콘진원 추천기업 보증료 20% 할인
엑스포 47개사 무역보험·보증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K-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문화산업 수출 지원에 속도를 낸다.

무보는 4일 올해 K-콘텐츠 기업 두 곳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작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영화·드라마·게임 등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146개사에 총 1858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출연금을 기반으로 지원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무보는 지난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전담팀을 신설하고, 음반·영화·드라마·게임 등 문화상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화 상품인 '문화산업보증'을 도입했다. 해당 보증을 통해 지원받은 K-콘텐츠 기업 17개사의 연간 수출 규모는 총 4200만 달러로, 무보의 보증 공급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수출 확대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국내 게임 제작사 소울게임즈 관계자는 "지난해 자사의 모바일 게임이 중국 라이선스를 획득해 중국 내 서비스와 마케팅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며 "무보의 금융지원 덕분에 자금 부담을 한층 덜게 되었고, 향후 신작 게임 개발에도 지원 자금을 요긴하게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K-POP 음반·굿즈 수출기업인 코머스코퍼레이션 관계자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으로 수출 오더가 급증했으나, 담보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면서 "최근 무보의 지원으로 수출용 K-POP 음반과 아이돌 굿즈를 적시에 확보해 늘어나는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무보는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콘진원 추천 K-콘텐츠 기업에 보증료를 20%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K-콘텐츠 엑스포 참가기업 47개사에 콘텐츠 수출에 특화된 무역보험·보증을 제공해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지원했다.

장영진 무보사장은 "최근 K-POP, K-드라마 등 K-컬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례 없는 기회"라며 "문화산업 지원이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확대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 수출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한전, ADB 전력교육 국제입찰 수주

(아시아개발은행)

프랑스 EDF 등 9개국 11개기관 경쟁
SCQS 891점 기록해 최종 선정

한국전력은 인재개발원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파키스탄 전력분야 인력양성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지난 3일 ADB와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키스탄 청정 및 지속가능 에너지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력분야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입찰에는 프랑스 EDF, 이탈리아 CESI 계열 교육기관 등 9개국 11개 전력 전문 교육기관이 참여했다.

ADB의 자격 기반 종합심사(SCQS) 결과, 한전은 기준점수(750점)를 크게 웃도는 891점을 기록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기술력과 교육 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제 경쟁입찰에서 유럽 주요 전력기업 계열 기관을 제친 성과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취임 이후 "회사의 어려운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비용만 집행하던 조직들도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라는 경영방침을 강조해왔다. 한전은 이번 수주가 해당 방침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교육은 오는 4월 12일부터 9월까지 파키스탄 전력분야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한전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이론 교육과 함께 한림해상풍력, HVDC 변환소, 배전스테이션 등 국내 전력 인프라 현장 견학도 병행될 예정이다.

한전 인재개발원은 2003년 필리핀을 시작으로 해외 발전·송배전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한 교육을 수행해 왔다. 2024년까지 총 41개국, 1428명의 글로벌 전력 인재를 양성했으며, 2025년에는 ADB 등과 협력해 인도네시아·스리랑카·방글라데시 대상 교육도 진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폴리텍대학서 기술 배워 인생 전환

'삶을 바꾸는 기술교육' 결실
올해 졸업생 9769명 현장 투입

미용실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던 두 청년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기술교육을 통해 대기업과 공직에 나란히 진출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4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와 실습생으로 함께 근무하던 원솔(29) 씨와 최세종(27) 씨는 진로 고민 끝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인공지능(AI)전자과 2년제 학위과정에 함께 입학했다.

비전공자였던 원 씨는 성실한 학업 태도로 정보처리기능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을 취득했고, 지역인재 9급 공무

원(방송·통신 직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최 씨는 학생회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LS전선, 코오롱, 한화이셀셀 등에 합격했고, 현재 LS전선에서 근무 중이다. 두 사람은 "학교에서 배움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라며 "한국폴리텍대학에서의 경험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됐다"라고 말했다.

기술교육의 성과는 중장년층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10여 년간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 일해온 이동호(39) 씨는 경력 전환을 결심하고 춘천캠퍼스 산업설비과에 입학했다. 그는 2년 만에 에너지 관리기능장을 비롯해 공조냉동기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총 9개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삼양식품 원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전경.

주공장에서 핵심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 씨는 "교수님들의 실무 중심 수업과 현장 실습이 다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기술로 사회에 기여하는 전문가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K-푸드 대사'로 해외홍보 강화

권역별 전략품목으로 시장 다변화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이 시장 개척을 위한 '권역별 맞춤형 전략'의 구체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K-푸드 수출기획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권역별 전략품목 선정 ▲K-푸드 대사 선정·운영 계획 ▲부처별 K-푸드 수출지원 계획 등 3개 안건을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권역별 전략품목 안건의 경우, 수출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수출 동향과 현지 수요, 품목 경쟁력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3개 내외 전략품목이 제시됐다. 예로, 미국

김치, 중국 이너뷰티·단감, 일본 참외, 중동·아세안 할랄식품, 유럽 비건식품 등이다.

회의에서는 해외 소비자 대상 홍보 강화를 위한 'K-푸드 대사' 선정·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K-푸드 대사는 수출 거점 재외공관과 수출기업 추천,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선발되며, 주요 권역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과 콘텐츠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K-푸드 수출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 방안을 공유했다. 외교부는 공공외교 연계 홍보를,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와 식품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협, 설 맞이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

국산 농축수산물 등 선물세트 선택

농협경제지주가 설 명절을 맞아 16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설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4일 농협에 따르면 이번 할인행사는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인기 가공식품·생활용품 등 다채로운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특히 실속형 상품부터 프리미엄상품까지 가격대를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농협은 행사카드 및 간편결제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3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250만 원의 농촌사랑상품권을 증정해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매 혜택도 강화했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이



농협경제지주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설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엄선한 선물세트를 고객께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농협은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국산 농축수산물 판매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향해 선박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지원

해수부, 선원기금 투입해 보급비 지원

정부가 국제항로를 오가는 선박 내 초고속 인터넷 도입을 지원한다. 그간 대부분의 선박은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선원들이 사진 전송, 동영상 시청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선원기금'을 통해 저궤도 위성 인터넷 보급 지원을 위한 기념행사를 오는 5일 부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과학기술통신부에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단말기 적합성 평가 등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건의하는 등 선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도입을 준비해 왔다.

과기부는 주파수 분배표 개정, 기술기준 마련과 해외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원웹의 국경 간 공급을 승인해 저궤도 위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저궤도 위성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기존 대비 50배 이상 빠른 육상의

LTE급 수준의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념행사에는 김성범 해수부장관 직무대행과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 이승우 선원기금재단 이사장, 해운협회 및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노·사·정이 함께 이뤄낸 성과를 축하할 예정이다.

선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지원사업은 국제필수선박과 국제지정선박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선원기금을 통해 이달부터 적당 매월 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선원기금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김성범 해수부장관 직무대행은 "선내 초고속 인터넷 도입을 통해 장기간 선박에서 생활해야 하는 선원들의 고립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선원이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